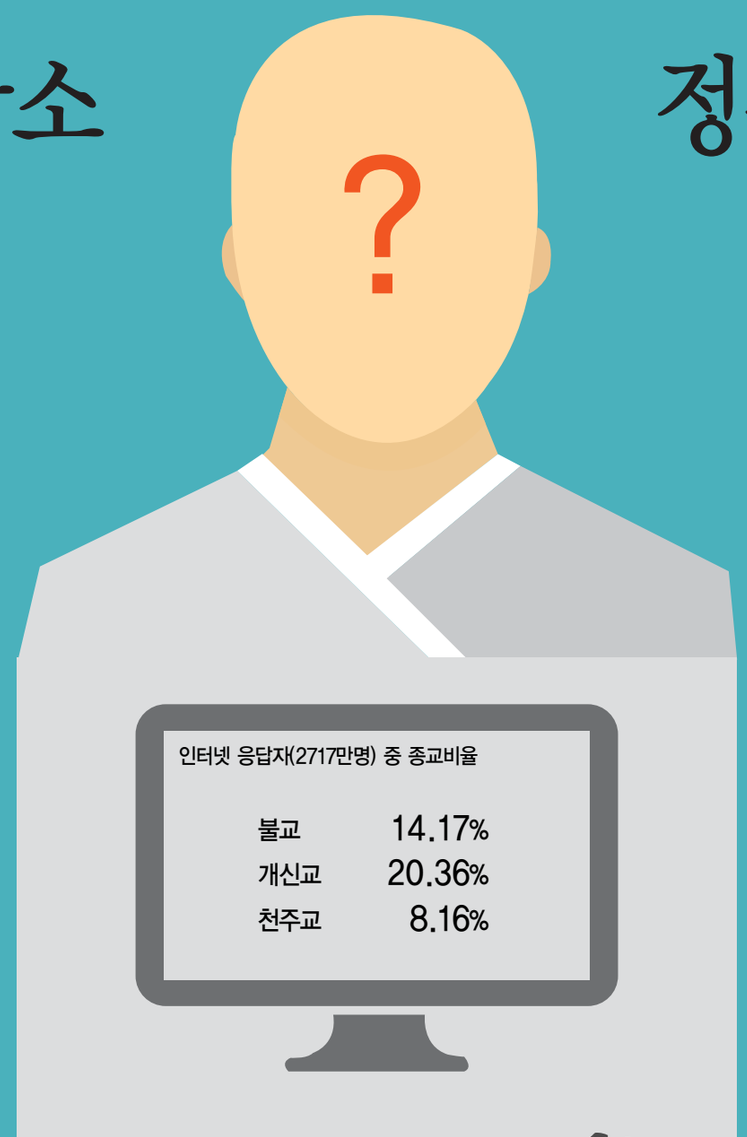
300만 불자 감소 정부조사 맞을까

Fact Check Q&A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방식 논란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서 10년 전 대비 불교인구가 약 30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교계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천주교 역시 110만 명 가까이 줄어들고, 무종교인이 56%를 기록하며 탈종교화 현상을 실감케 했다. 이에 반해 개신교는 12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새로 도입된 조사방식에 종교계 의문이 제기됐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서 표본에 대해 인터넷 · 면접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조사방식을 두고 불교계는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항의했다. 통계청은 "20% 표본조사는 전수조사에 가깝고 오차가 매우 적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논란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에 인구주택총조사에 적용된 조사방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면서 종교분야 유 · 불리 여부, 조사결과 정책 활용 여부, 해외사례 등을 알아봤다.



종교별 성적표 '인구통계'

탈종교화 함께 불자 대폭 감소
개신교에 종교인구 1위 내줘
불교계, 조사방식에 의문 제기

Q1. 조사방식 불교계에 불리한가

표본 수만 1000만 명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 표본조사는 통계학계서도 오차가 없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 논란의 핵심은 전수 · 표본조사 방식이 아닌 인터넷조사와 면접조사가 함께 활용됐다는 점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통계청 회신자료에 따르면 인구 4905만 명 중 2717만 명이 인터넷조사에, 2188만 명이 면접조사에 응했다. 이 결과는 20% 표본조사 후 100%로 환산한 값이다.

조사방법별 응답 종교인구(비율)는 △불교-인터넷 385만(14.17%) · 면접 376만(17.72%) △개신교-인터넷 553만(20.36%) · 면접 414만(18.92%) △천주교-인터넷 221만(8.16%) · 면접 167만(7.63%) 명이다. 전체인구 대비 각 종교인구가 불교 15.53% · 개신교 19.72% · 천주교 7.93%임을 감안할 때 불교만 유독 인터넷 응답이 적고, 면접 응답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치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안홍엽 동국대 통계학과 교수는 "인터넷과 면접조사 결과 합산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해봐야 하지만 서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질적인 결과값으로 평균을 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면서 "불교인구가 줄어든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 차이가 극대화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Q2. 지역별 편차 원인 오리무중

이외에도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교세가 가장 강한 영남지역 불자감소가 두드러졌고, 반대로 호남지역 불자감소율은 낮았다. 과거 통계와 비교했을 때 부산(10.7%) · 경남(10.7) · 울산(10%) · 대구(9.6%) · 경북(8.6%) 순으로 불교인구가 감소했다. 그러나 이 지역들은 이번 조사에서도 불교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불교세가 약한 광주(4.9%) · 전남(5.2%) · 전북(4.2%) 지역의 불자 감소율은 절반수준이었다. 인구가 가장 밀집한 서울과 경기도 역시 각각 6% · 6.1% 감소율을 보여 영남권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 편차와 관련해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표본조사결과 일반화과정서 나타난 오류일 수 있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김 교수는 "비율의 왜곡현상은 종교인구 추계가 잘못됐음을 시사하는 변화폭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Q3. 가구원 개별종교 반영됐나

인구주택총조사는 모든 항목에 대해 각 가구원별로 응답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터넷과 면접조사 대부분 가구원 한 명이 대표해 응답한다는 점에서 가족 종교불일치에 따른 응답 오류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열린 신대승네트워크 토론회서 박수호 덕성여대 지식문화연구소 연구교수는 "가족 내 종교 다양성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서 가구주(대표자)가 가족 모두의 종교를 응답하는 방식이 의미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기도 했다.

개신교계 언론에 보도된 목회사회학연구소 분석결과도 비슷하다. 이 연구소는 "그동안 조사 응답에 많이 임했던 어머니들이 가정의 종교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청년 · 남성층이 인터넷 조사를 통해 응답하면서 다른 대답을 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물론 전문가들의 이 같은 분석은 달리 해석하면 1985~2005년까지 총 3차례 걸쳐 실시된 종교인구조사결과에도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불교인구 1000만 명이라는 기존 결과 역시 허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Q4. 종교인구결과, 어떻게 활용되나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인 조계종은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통계청을 방문, 종교항목 공개 금지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행보를 펼쳤다. 이를 두고 '부끄러운 민낯을 받아들이라'는 세간의 지적도 있으나 통계결과에 종교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각종 정책 입안과 예산 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주택총조사는) 다른 표본조사의 기본자료가 되고, 각종 정부 부처의 정책 수립에도 근간자료로 활용된다"며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종교관련 사업에 이 같은 조사결과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정했다.

정부 종교정책을 총괄하는 문체부 종무실 관계자도 비슷한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번 통계조사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300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온 불교의 경우 전통문화보존의 역할도 크다. 정책 수립에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에둘러 설명했다.

Q5. 해외 국가 종교인구 통계는

해외 국가들도 대부분 종교인구를 국가적으로 조사한다. 다만 몇몇 특수성을 가진 국가들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진구 종교문화비평 편집위원장의 1월 17일 한국종교문화연구원 칼럼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국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종교 여부와 종류를 묻는 행위 자체가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 차원의 종교인구 조사를 하지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민간 차원의 전문조사 기관들이 종교인구 관련 표본조사 작업을 시행하고 있고, 관련 종교학자나 연구자들도 이들의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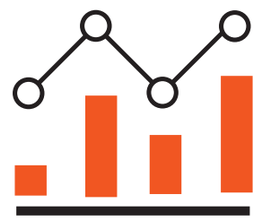
기독교와 무슬림이 양립하는 레바논도 종교인구 조사를 하지 않는데, 이는 개인의 종교 자유보다 정치적 요인이 크다.

통계결과가 어떻든 종교인구가 감소한 각 종교계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연성 · 견성종교 견해부터 각종 범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적극적인 대사회활동 등을 주문한다. 불자들의 결속력과 네트워크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모두 옳은 지적이고 제안이다. 이제 단순히 전수조사라는 믿음 아래 외쳐온 '1000만 불자'는 접어두고, 미래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할 때다. 다만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종교인구 조사는 '각 종교계의 성적표'라는 꼬리표가 붙기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민감한 사안임에 분명하다. 게다가 향후 10년간 각종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밖에 없어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팀-신성민 · 노덕현 ·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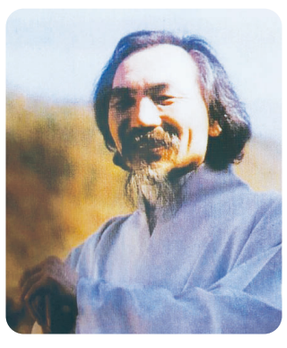
불교, 자성의 목소리 높아

"민낯 받아들이자" 지적 多
'1000만 불자' 외침 뒤로 한채
미래대안 모색 · 실천 나서야



봉 봉암당 대희개사 다례대전 행

조선불교 중흥율 제6세이시며 민족대표 백용성조사의 은 · 법 · 강 · 율의 상좌로서 기사 11월 3일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선구자이신 봉암당 대희개사 열반42주년 다례대전을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각 문파의 어른스님과 대덕스님, 석가산 대장로의 문도님께서는 무루 예참하시길을 합장합니다.





● 일 시 : **불기 2561(2017)년 2월 15일 (음, 정월 19일) 수요일 10시**
● 장 소 : 진천 원융호국사

석가산대장로 문도회 회장 석적연 화남

부처님 진신사리 출현

화엄경 사경공덕으로
천상에서 사리를 공양 받다

석가산대장로 화엄경 65권 사경 중 원융호국사 부처님 손에 부처님 진신 혈사리 2과 출현 정유년 1월 초3일 봉암개사 열반42주년 다례대전에 참석한 현헌 이동헌처사님께서 꿈에 현몽 받아 발견하고 직접 촬영한 모습.

화엄경65권 此一切工巧大神通智光明法門 (이는 일체가 교묘한 대신통력의 지혜 광명법문이다.)하는 대목을 사경중에 현헌처사가 발견 촬영하였다.



저희들의 큰스승이신 석가산대장로께서는 경전결집의 대서원을 세우시고 폐관 · 묵언 · 장좌불와 · 일자일배를 하시면서 대방광불화엄경 80권과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을 세존응화 3022년 10월 6일에 제일차 사경을 원만회향하셨습니다.

저희들의 큰스승이신 석가산대장로께서는 무진한 서원과 대정진력으로 노구를 이끄시고 목우한실 폐관하시어 묵언을 하시며 제2차 80화엄사경을 입제하신지 233일에 화엄경 65권 중, "이는 일체가 교묘한 대신통 지혜광명법문이다."라는 경문을 사경 하시자 현몽을 받은 마을상좌 현헌처사가 원융호국사에 도착하여 대장로에게 현몽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대웅전 부처님의 손에서 부처님의 진신혈사리 2과를 발견하고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80화엄경을 2번씩이나 사경하시는 석가산 대장로의 원력을 찬탄하고 공덕에 감응하여 세계불교 역사상 최초로 하늘나라 범천왕께서 부처님 진신혈사리 2과를 공양한 것 입니다.